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바이백 확대”..장기금리 하락, 미국증시 반등

- 미국증시 주요지수 4거래일만에 반등
- 미 재무부 “장기채 바이백 최소 2배 확대”
- FOMC 의사록 “물가 안 잡히면 긴축 필요”

Summary

미국증시 소폭 반등

현지시각 8월 19일 수요일 미국 증시는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 소식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최근 시장을 둘러싼 고금리에 대한 전반적 경계감을 완화, 4거래일만에 반등. 반도체주 약세는 이날도 이어졌지만 이외 빅테크와 소프트웨어, 호재성 이슈가 있었던 헬스케어 업종 등의 강세가 오히려 시장 상승을 견인함.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22% 상승한 53,463.05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21% 상승 7,707.98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16% 상승한 26,331.09에 거래를 마감했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2천은 0.50% 상승 마감. 나스닥 100 지수는 0.22% 소폭 하락세를 이었고 변동성 지수 VIX는 6.00% 하락.

(다우 +0.22%/ S&P500 +0.21%/ 나스닥 +0.16%/ 러셀2000 +0.50%)

미국 재무부 “장기채 바이백 최소 2배 확대”

최근 연이틀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래 최고 수준을 경신하자 이날 미 재무부가 조치에 나섬. 재무부는 잔존 만기 ‘10~20년’과 ‘20~30년’ 두 구간에서 회당 바이백 규모를 현재 최대 20억 달러에서 향후 최소 40억 달러로 최소 2배 이상 늘린다고 밝힘. 바이백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채를 만기 도래 이전에 다시 사들이는 것. 최근 재무부는 유로-엔 시장에서 유로를 매도하며 엔 강세를 도왔던 바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미 국채를 팔아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 국채 금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던 바 있음. 여기에 이번 바이백 확대 결정은 장기 국채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실제 액션이나 구체적 규모보다 재무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임. 재무부의 적극적 개입에 이날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 중 10bp 안팎 급락. 10년물 금리 역시 5bp 이상 크게 하락. 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달러도 약세.

미국 국가 부채 40조달러 돌파

다만 국채 금리 상승의 주 요인이었던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 확대 기조는 특별히 방향을 달리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재무부의 유동성 공급 개입이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음. 실제 이날 재무부가 공개한 미국의 총 국가부채

는 18일 기준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함. 미 국가부채가 30조 달러를 돌파한 2022년 1월 이후 4년여만에 10조 달러가 더 불어난 것.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를 시작했을 당시 19조 9,5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여년 사이 두 배 이상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국가부채는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낳음. 블룸버그는 회계연도 2026년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 1,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지적.

국채 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 비용을 키우고 이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또 다시 추가 차입에 나서 부채를 키우며 이는 결국 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 요구로 이어져 또 다시 금리가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경계 요인.

FOMC 의사록 “물가 안 잡히면 긴축 필요”

지난달 진행된 FOMC 의사록이 이날 공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또 금리 인상을 지지한 몇몇 위원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봤으며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긴축적 정책 기조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회 가능성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연준이 더 긴축적 정책 기조로의 선회를 지체할 경우 추후 잠재적으로 비용이 더 큰 긴축 조치를 연속적으로 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회의록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의견은 언급되지 않았음. 지난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표를 던진 위원은 총 3명이었지만 실제 연준 내 금리 인상 논의는 드러난 표의 개수 대비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임.

한편 지난 회의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현재 연 8회 열리는 FOMC 회의를 연 6회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했음. 이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올해 회의 일정에도 변화는 없음.

특징종목

S&P500 내 섹터별로는 헬스케어(+3.52%) 섹터의 오름폭이 가장 컸고 이외 재량 소비재(+2.14%), 소재(+1.67%), 필수 소비재(+0.79%), 부동산(+0.74%) 섹터 순으로 상승. 산업재(-0.89%), IT(-0.73%), 금융(-0.62%), 에너지(-0.31%) 섹터는 하락.

헬스케어 강세: 모더나 폭등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 확대 수혜 종목군이 밀릴 때 마다 순환매가 유입되며 버팀목 역할을 했던 헬스케어 업종이 이날은 주인공 역할을 함. 특히 모더나(+176.97%)의 폭등이 이날 전체 업종 투자심리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모더나는 맞춤형 암백신 임상 3상 성공 소식을 전하며 급등세를 연출. 모더나는 머크(+12.60%)와 공동 개발 중인 맞춤형 암백신 ‘인티스메란 오토진’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병용 요법이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표준 치료 대비 암 재발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

혀. 모더나와 머크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승인 절차를 협의할 계획. 이 소식에 모더나 주가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 부진했던 주가의 지속적 약세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은 평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됨. 윌리엄 블레어는 이날 모더나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

모더나의 암 백신 임상 성공 소식은 바이오엔테크(+21.96%), 마라바이 라이프사이언시스 홀딩스(+25.78%), 아크투루스 테라퓨틱스 홀딩스(+25.21%) 등 mRNA 플랫폼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매수로 이어졌고 XBI(+5.90%), XLV(+3.51%) 등의 헬스케어 ETF 들도 신고 가권에 진입.

반도체주 약세 지속..마벨은 '반짝'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지속. 전일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SK하이닉스(ADR, +0.35%)가 강보합에 그쳤고 엔비디아(-0.99%)는 중국으로 H200 칩을 소량 반입이 허용됐다는 보도에도 약세. 이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0.39%)가 전일의 급락에도 반등 없이 소폭 약세권에 머물렀고 AMD(-3.71%), 인텔(-4.02%), 샌디스크(-3.50%), 시게이트 테크놀로지(-7.87%), 웨스턴 디지털(-6.87%), ASML(-2.84%), 램 리서치(-6.33%), KLA(-3.86%),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3.53%), 텍사스 인스트루먼트(-1.76%) 등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

다만 구글(+0.15%)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9.85%)와 손잡고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은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림. 마벨은 구글과 TPU를 비롯한 맞춤형 AI 반도체, 그리고 관련 하드웨어를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마벨은 구글에 자사 주식 최대 5,890만주를 주당 206.58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를 발행함. 구글이 이를 모두 행사할 경우 규모는 최대 122억 달러. 다만 구글이 이 122억 달러를 당장 마벨에 투자하는 구조는 아니며 우선 약 130만주에 대한 권리가 1년간 분기별로 나눠 확정되고 나머지는 구글의 마벨 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보되는 형태. 마벨은 최근 아마존(+2.46%)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AI 가속기를 설계하는데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엔비디아(-0.99%)의 GPU에 의존하는 대신 빅테크가 자사 서비스에 최적화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흐름의 핵심 업체로 부상 중. 최근 12개월 사이 주가는 이미 3배 이상 상승. 구글의 주요 공급업체 브로드컴(-4.61%) 주가는 이 소식에 약세.

이외 특징주

아마존닷컴(+2.46%)은 올해 말까지 미국 내 약 500개 도시와 지역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 메타 플랫폼스(+0.43%)는 전일 개시된 아동/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의 영향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강세.

글로벌 화장품 업체 에스티 로더(+16.30%)는 시장 예상을 웃돈 분기 실적에 급등했고 미국 가구업체 레이저보이(-16.95%)는 분기 수익성 악화에 시장 기대를 밀도는 매출 전망까지 내놓으며 급락.

고급 주택 건설 업체 톨브라더스(+4.00%)도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실적 가이드스가 유지되면서 상승. 주택 수리 용품 소매업체 로우스(-1.07%)는 기대보다 좋은 실적에도 연간 실적 가이드스가 부진한 영향으로 하락.

대형 유통 업체 타겟(+4.28%)은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소식에 강세. 할인 유통업체 TJX 컴퍼니스(-4.21%)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분기실적에도 동일매장 매출 성장 둔화와 보수적 연간 실적 전망에 약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9.55%)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힘입어 강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69,000달러대까지 회복. 로빈훅 마케츠(+4.63%), 라이엇 플랫폼스(+2.49%), 마라 홀딩스(+7.70%), 스트래티지(+12.68%) 등의 관련주도 동반 강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유가 상승세 지속..금값은 4,500달러 회복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하방 보다 상방으로의 압력을 크게 받으며 상승세를 유지. 이란측에서는 협상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었지만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협상은 어느 시점에 재개될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 아랍에미리트(UAE)는 역내 긴장 고조를 이유로 이란과의 모든 금융, 경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는 향후 이란의 반발로 인한 역내 긴장감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5% 상승한 배럴당 85.83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10월물은 0.60% 상승한 배럴당 91.62달러를 기록.

금값은 약 2개월 반만에 최고치로 상승. 이날 국제금리와 달러가 하락한 영향으로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미국 금 선물은 4,545.3달러까지 상승했고 현물 금값도 4,500달러에 근접. 은 선물도 3% 가까이 상승해 온스당 66달러를 재차 회복.

재무부 '바이백 확대'에 장기채금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발표에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 전환. 다만 재무부의 유동성 공급이 국채 금리의 근본적 상승 요인이었던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발행 확대 전망,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의 방향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라는 인식에 낙폭은 제한적이었으며 지난달 FOMC에서 연준 위원들 사이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의사록을 통해 확인하자 단기물 금리는 장 중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는 등 하방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음. 재무부 조치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점도 단기물 금리 장 중 상승의 요인이 됨.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금리는 0.9bp 하락한 4.1623%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5.8bp 하락한 4.6466%를 기록, 4.7% 아래로 내려섬.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9.2bp 하락한 5.1911%를 기록, 5.2%선을 하회.

한편 바이백 확대 계획 발표에도 이날 치러진 20년물 입찰은 발행 수익률이 지난달 입찰 때에 비해 높아지는 등 결과가 부진.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32% 초중반대 수준으로 반영했고,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40% 중반대로 반영.

달러 인덱스, 3개월새 최저

달러 가치는 국채 금리 하락과 맞물려 급락.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장 중 장기채 금리 낙폭이 10bp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낙폭을 확대해 99선을 이탈, 0.86% 하락한 98.795를 기록. 이는 지난 5월 29일 이후 약 석 달만에 가장 낮은 수준.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직전 거래일 대비 14.10원 하락한 1,397.70원에 마감. 1,400원대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한건 지난해 10월 초 이후 10개월 반만의 일로 이날 야간거래에서 달러가 낙폭을 확대하자 1,38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음.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는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45원)을 고려하면 전일 서울장 종가 대비 8.85원 하락한 1,388.40원에 최종 호가됨.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